

목차

1. Story..... 2

1.1. 태초의 세계와 3 일의 이야기.....2

1.2. 천사의 탄생2

1.2. 세력2

1.3. 기술적배경.....2

1.4. 지리 환경적 배경2

1.5. 주요 갈등2

1.6. [관리자].....2

업데이트 기록

1. Story

1.1. 태초의 세계와 3일의 이야기

1.2. 천사의 탄생

1.3. 세력

1.3.1 지상계

1.3.2 천계

1.3.3 다아트[da'at]

1.4. 기술적배경

1.5. 지리 환경적 배경

1.6. 주요 갈등

1.7. [관리자]

1. Story

1.1. 태초의 세계

태초의 세계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런 어둠만이 가득한 세계에서 한 아이가 눈을 뜨게 된다. 아이의 이름은 케테란¹. 케테란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알지는 못하였지만, 이 곳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막 태어났을 뿐인 케테란은 순식간에 세계를 빛으로 밝혔다. 세계를 빛으로 밝히니 케테란은 물 위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젖은 몸을 말리며 잠깐 쉬기 위해 케테란은 대지를 만들어 그 발을 땅에 내딛었다. 그렇게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라는 세계의 첫 기틀이 갖추어졌다. 하지만 땅을 만드는 것에 많은 체력을 소모한 케테란은 그 자리에서 잠에 들었다.

두번째 날에 케테란은 황무지를 꾸미기로 했다. 그러나 황무지를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케테란은 휴한중에 자신의 능력을 불어넣어 자기와 함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생명을 만들었다. 그 생명의 이름은 말쿠트². 이 세상에 처음 뿌리를 내린 나무다. 말쿠트는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주변을 본인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풀과 나무들로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 그 능력은 식물에 한해서는 케테란을 능가했기 때문에 세상은 곧 온갖 풀과 나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케테란은 말쿠트를 따라서 온갖 생명체들을 조금씩 만들어 보다가 곧 체력을 전부 소모하고는 다시 잠에 들었다.

세번째 날에 케테란은 문제에 직면했다.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말쿠트는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했지만 문제는 빛이었다. 빛에 오랜 시간 노출된 생명들은 말라 죽었고, 대지에 생명이 사라졌음을 느끼는 말쿠트는 자신의 생명력을 끈임 없이 소모하여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있었다. 말쿠트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이를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케테란은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가 물로 구름을 만들었고, 빛을 가리고 비를 내리게 하여 생명들을 구했다. 케테란은 지상으로 내려오려고 하였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하늘의 구름을 움직여 빛의 세기를 조정하는 건 케테란 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하늘에 남게 되었다. 그래도 그녀는 7일마다 지상으로 내려와 말쿠트와 이야기를 하며 하루 정도는 지상에서 쉬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이 세계는 완성되어 갔다. 대지와 바다에는 점점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하늘은 케테란의 관리 아래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생겨 순환을 이어갔다. 다아트³의 실험장은 그렇게 완성되어 갔다.

¹ '다아트'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관리 생명체'로, 세계를 관리함으로써 다아트의 실험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을 보조하는 생명체들 중 하나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목차에서 다를 예정

² 케테란에 의해 만들어진 하위 생명체로, 이 땅에 뿌리를 처음 내린 나무이다. 케테란을 도와 이 세계의 대지를 꾸미는 일을 하였다. 플레이어가 챕터1에서 맞이하게 되는 보스이기도 하다.

³세계를 만들고 제거하기를 반복하며 실험을 하는 전지전능에 가까운 존재들을 지칭하는 말.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단순한 유희일수도 있으며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평범한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 무한한 영역으로 뻗어 나가는 이 종족을 흔히 [관리자]라고 지칭한다.

1.2 천사의 탄생

하나의 세계가 창조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 정확히는 이 실험장의 주인이 되는 다아트는 지루한 이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아트는 그때 처음 케테란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케테란이 느낀 감정은 창조주를 향한 동경이나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케테란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다아트의 의지를 따랐다. 이 지루한 세계에 자신의 창조주가 흡족할 만한 '변수'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을 비롯해 자신이 만든 이 세계가 파괴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며 변수를 창조해야 하는 것인가? 케테란은 이 세계를 지키고 싶어했다. 그건 다아트의 의지에 크게 반하는 행동이었다. 케테란은 자신의 창조주를 죽일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우선은 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시간을 끌어야 했다. 케테란은 이번에는 자신의 형상으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케테란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존재들이었다. 바로 '천사'⁴의 탄생이었다.

처음 만든 생명체는 '가브리엘'⁵이라는 이름의 천사였다. 하지만 천사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브리엘은 케테란이 이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많이 투영된 천사였다. 그러다 보니 사랑은 집착이 되어 특정한 상태와 순환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창조에 적합한 천사는 아니었다. 결국 가브리엘은 낮과 밤의 순환을 통해 생명을 관리하는 하늘을 담당하는 천사로 사용되었다.

두번째로 만든 천사는 '아바돈'이었다. 아바돈은 가브리엘 보다는 훨씬 진취적인 성격의 천사였으나,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바람에 창조보다는 파괴에 조금 더 적합한 천사였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바돈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했다. 너무나도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간단한 자극과 위험에도 쉽게 흥분하고 반응하는 바람에 통제가 쉽지 않았다. 결국 케테란은 아바돈은 하늘 너머의 어둠만이 가득한 공간에 격리당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세번째로 만든 천사는 '미카엘'이었다. 미카엘은 케테란이 앞선 두 차례의 실수와 데이터로 심혈을 기울인 천사였다

⁴ 천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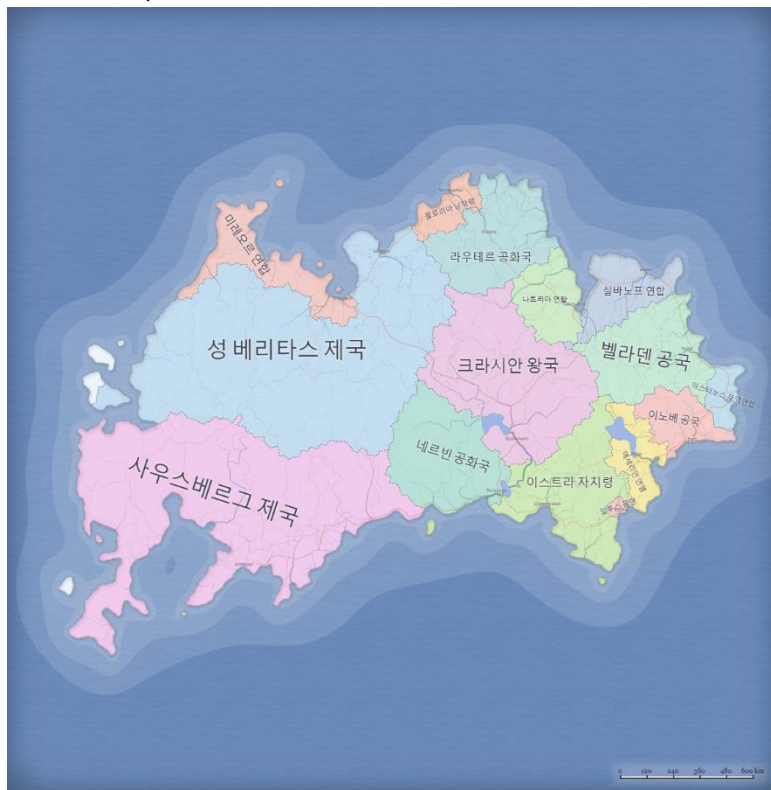
⁵ 가브리엘

1.3 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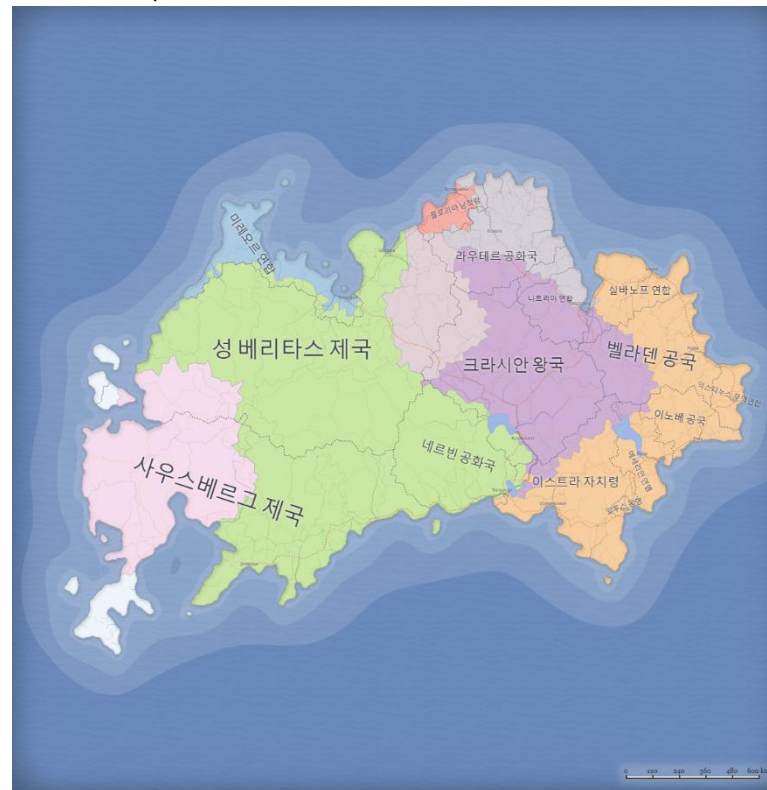
1.3.1 지상계

플레이어가 플레이 하게 될 게임 속 현재 시점의 지상계를 설명하는 파트.

Political Map



Cultural Map



[각 국가에 대한 설정 링크](#)

1.3.2 천계

1.3.3 다아트[da'at]

